

羊と銅の森
미야시타 나오토
장편소설
이소담 옮김

파랑이 나무를 흔들어 나뭇잎이 비스듬히
밤이 되기 시작한 저녁의 숲에서

★★★★★ 입소문만으로 50만 부 이상 판매 기록!



그거 알아?

피아노는 양과 강철의 숲으로 되어있다는 거.

부드러운 양털 해머가 강철로 된 현을 때리면서
그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래.

힘없고 작은 우리가 온몸으로 삶을 부딪치면서
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...

그래선가?

피아노는 우리 인생을 닮았어...





올 겨울, 50만 명의 마음을 치유했던 '피아노 조율사'가 찾아온다!

★★★★ 올해가 가기 전에, 이 책을 만나 다행이다.

★★★★ 선하고 아름다우면서 강렬한 이야기

★★★★ 내 인생, 최고의 감동이었다!

★★★★ 책장을 넘기는 순간, 다정한 소리가 났다.

독자들이 뽑은 <양과 강철의 숲> 명문장들

시간이 걸려도, 빙 돌아가도,
이 길을 가면 된다.
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숲에,
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풍경
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.

초조해하면 안 됩니다.
차근차근, 차근차근입니다.

당연하면서도 기적이다.
분명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
세상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
숨어 있다.

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<북트레일러>



<양과 강철의 숲> 웹툰으로 미리보기



감상 하기 ▶▶

칭찬도 위로도 없는 길 위에 선 우리 모두를 위한 감성소설



양과 강철의 숲

미야시타 나츠 | 13,000원 | 예담

도서 구매하기 ▶▶